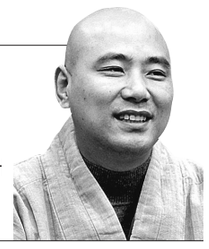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관계 회복은 명상 수행으로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육방예경〉 관계 회복 가르침
부모 · 선생 · 배우자 · 친구 구분해
주요 타자와의 관계 성장 설명

발달 주기 '주요 타자' 살피면
현재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풀지 못한 응어리 명상통해 해소
관계 인연들 행복 기원하기를

최근 관계회복을 위한 명상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상처 제공자가 가까운 사람이라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견디기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자신도 바로 보고 관계도 바로 보게 한다.

관계를 바로 보게 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육방예경(六方禮經)〉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관계를 발달주기에 배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이 경전을 통해 살펴보면 독특하게 부모 영향기, 선생 영향기, 배우자 영향기, 친구 영향기로 나누고 있다. 해가 떠서 지는 것과 사계절의 변화를 은유한 동 · 남 · 서 · 북의 네 방위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는 삶을 돌아보게 하고 2차적으로는 '나' 라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발달시기와 그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한 타자' 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보호 요인이자 때로는 위험 요인이기도 한 발달 주기별 '주요한 타자' 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지금까지 인연 맺은 '주요한 타자들' 과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되고 만약 그 중 누군가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관계 회복 명상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만약 어머니와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머니, 부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세요"라고 해보자. 그 당시의 어머니의 영상을 떠올려 펼친 손바닥 위에 놓고 그저 담담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다 보면 켜켜이 쌓였던 불편한 감정들이 마른 풀 불에 사라지듯, 용광로에 눈 녹듯 자취를 감추게 된다.

〈자애경〉을 보면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이 관계 회복 명상의 기반이다.

육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뺀 나머지 상하 방위는 선지식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의 맥락으로 보면 위쪽 방위는 발달을 통해 자기 본성을 회복한 사람을 만나 자신도 그와 같이 본래 자기를 회복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래 방위는 그 회복의 경험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깨침을 사회화하는 건강한 전승을 의미한다.

관계 회복 명상 과정 중에 명상을 통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참가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무엇이 조금 다를까"라는 '미라클 질문' 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붓다로 살자' 로 시작한 관계명상인데 그 취지에 맞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다. 질문에 보태어 붓다의 행동, 언어 그리고 생각을 써보게 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청정함을 표현하고 대부분 자신의 본성을 자각한다.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역할과 그에 맞는 명상법을 질문하면 기발한 발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관계 명상 방법들을 쏟아낸다.

예를 들어 "옆으로 걸으면서 하는 가재걷기명상으로 평등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라든가 "안아주기 명상으로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해야 합니다" 등등.

관계로 마음 불편한 이들이, 주요한 타자들을 상징하는 여섯 방위를 향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관계회복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머지않아 온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관계회복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社 說

총무원장 선거문화 혁신 기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마련된 이래 최초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 후보자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책토론회가 열린 사례는 있으나 이는 불교기자협회와 중앙신도회 등이 주최해 종단차원의 토론회는 아니었다. 따라서 종단이 주체적으로 종책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대중이 앞으로의 선거문화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종책토론회 개최에 후보자들이 합의하며 한 차례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토론회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다.

물론 이번 토론회가 대중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통질문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종책 실현 방안을 듣기 어려웠고, 후보자간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다. 분명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대중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계종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금권선거 · 흑색선전 · 매관매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진행돼왔다. 수행과 청빈, 화합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불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임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말하고,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종전에 가까워지는 시대다. 불교계도 시대변화를 읽고, 선거문화의 구태를 혁신하는 모습으로 대중에 다가가야만 한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대표 노사 문제 중 하나였던 쌍용차 문제도 종지부를 찍었다. 2007여 명의 구조조정으로 9년만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사측은 전원 복직 교섭을 타결했다. 9년이라는 시간동안 30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전원 복직 타결은 반가운 소식이다.

근 10년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은 조계종이다. 2009년 8월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해고자 가족과 면담 후 이웃종교계에 쌍용차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화쟁위원회, 불교계 시민단체 등이 불교적 방법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차원 지원을 약속하며 천도재, 사면 청원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종단 안에서도 노동문제를 전담할 노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에는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된다.

쌍용차 사태는 그간 무지했던 노동운동 분야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조계종의 노력은 불자들의 의식 변화에도 한 몫을 했다. 불교계 언론 보도를 보고 대한문 분향소를 찾아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로했다는 에피소드는 진실성 있는 불교운동이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미해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불교계 내부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내부 노동문제가 원만해야 불교계의 노동운동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비구니 스님을 왜 배제하는가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이 완료됐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과 예비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이를 통해 240명의 교구별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중앙종회의원까지 합쳐 총 318명의 선거인단이 꾸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비구니 스님들은 배제됐다. 교구 선거인단 명부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들은 240명 중 22명이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까지 합치면 32명, 10%에 달하는 수치다.

24개 교구 중 8곳(직할, 신흥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대흥사, 백양사)은 비구니 스님을 아예 한 명도 배정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어땠을까. 사실 대동소이하다. 지난 교구 선거인단에는 비구니 스님 24명이 이름을 올렸고, 34대 선거에서는 20명이었다. 전체 수치로는 10% 안팎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계종이 2008년부터 종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몇몇 논문에서 조계종 승려 수와 비구 · 비구니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평론〉 제68호에 수록된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 에서 제시된 조계종 총무국의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의 총 승려 수는 1만3078명으로 이중 비구는 5972명, 비구니는 5501명이었다. 다시 말해 종단 승려 구성원 중 절반 가량인 42%가 비구니 스님이라는 이야기다.

일선 교육 · 포교 · 복지 현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비구 스님들의 활동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종무행정 부문으로 넘어오면 비구니 스님들은 배제된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비구 스님이 중요한 보직들에 당연한 듯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당연한 듯 행정과 선거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배제하는 문화가 과연 불교적인가. 어느 계율과 종헌 종법에도 '비구니 10% 선거인단 배정' 이야기는 없다.

기실 선거는 국민들의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종헌 제8조에는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 구성한다' 고 했다. 이는 조계종은 종단 구성원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부중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부중은 종단 구성원으로서 '주권' 을 가진다. 간선제로 운영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에 비해 10%만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구 독식' 선거 풍토는 불교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스님들이 공히 내건 공약 중 하나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였다. 모두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약속했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에 비구니 스님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문제는 총무원장 선출 이후의 의지와 실천이다. 조계종이 진정 사부중으로 구성된 종단이라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시 '10% 비구니 선거인단' 기사를 작성하지 않길 바란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